



일본 무사정권 출현을 이끈 천연두



편 용 우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pyunsama@gmail.com

‘일본’ 하면 ‘무사’, ‘할복’, ‘일본도(日本刀)’ 등 무사와 관련된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이는 오랫동안 무사들이 일본의 정권을 장악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에 무사정권이 처음 들어선 것은 1192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정이대장군(征夷代將軍)에 임명되어 가마쿠라(鎌倉) 지역에 무사정권을 수립하면서부터이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다른 무사 집단인 다이라(平) 일족에 의해 지방으로 밀려났으나, 와신상담해 일본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정치는 ‘덴노(天皇)’라고 불리는 왕을 정점으로 귀족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여느 동아시아의 정치 형태와 다르지 않았다. 덴노와 귀족들은 수도인 나라(奈良)를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정돈하고,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토지 제도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당시 토지는 모두 공적인 소유로 개개인에게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농토를 경작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이었다. 설령 의욕적인 농부가 산을 개간하여 새롭게 농토를 넓힌다고 해도, 그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어 개간한 농부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토지 개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는 개인의 토지 개간을 장려코자 새롭게 개간한 토지는 3대에 걸쳐 사적인 소유를 인정해 주는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의욕적인 토지 사업도 뜻하지 않은 복병에 무너지고 말았다. 바로 신라에서 들어온 천연두 때문이었다¹⁾. 당나라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신라에는 천연두

1) 735~738년의 천연두 대유행을 신라에서의 유입으로 보는 설은 그 역사가 깊다. 1219년 성립된 일본의 중세 설화집 『속고사담(續古事談)』에 「뱃사람이 바람에 휩쓸려 신라에 이르렀다. 뱃사람은 신라에 의해 송환되었을 때 (천연두가) 전국에 유포되었다」고 천연두 신라 유입설을 소개하고 있다.

2) 김은숙(1991)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 29, 국사편찬위원회, 107p.

창궐이 잦았다. 『삼국사기』 권7에는 ‘신라에는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병마를 징발하기 어려웠다’고 전하고 있으며, 714년에도 크게 유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8세기 일본은 신라에 20여 차례에 걸쳐 견신라사(遣新羅使)를 보낼 정도²⁾로 신라와의 교역에 열중이었다. 736년에도 천연두가 만연해 있던 신라에 100여명의 일본사신이 건너왔지만, 이듬해 1월에 고국으로 돌아간 것은 겨우 40명 정도였다. 당시 신라에 만연해 있던 천연두가 원인이었을 것이라 지적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견신라사의 일본 귀국 및 이에 따른 천연두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당시 일본 조정은 후지와라(藤原) 집안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특히 후지와라 후히토(藤原不比等)라는 인물이 덴노 왕과의 외척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사후에는 후히토의 네 아들은 무치마로(無智麻呂, 680-737), 후사사키(房前, 681-737), 우마카이(宇合, 694-737), 마로(麻呂, 695-737)로, 이들은 조정의 의결기관을 장악하여 병약했던 쇼무텐노(聖武天皇) 왕을 대신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 등 귀족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후지와라 4형제는 737년 유행하던 천연두에 감염되어 잇달아 병사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국정을 담당하던 권력자의 대부분을 잃은 일본 조정의 혼란은 눈에 보이듯 뻘뻘했다. 특히 쇼무텐노 왕은 전염병 유행을 자신의 부덕으로 보고 어떻게든 이 혼란을 타계해 보려고 했다. 당시 전염병이나 기근, 자연재해의 원인을 위정자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는 재이설(災異說)이 일반적이었던 일본에서는 왕이 이러한 이런 재난의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재해에서 벗어나야 할 책임도 있었다. 쇼무텐노 왕은 사찰과 대형 불상을 건립하여 속죄를 빌고, 수도를 천도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다. 지금도 일본을 대표하는 3대 대불(大佛) 중의 하나인 동대사(東大寺)의 나라 대불은 이 때 건립되었다.

대형 사찰 및 수도 천도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가뜰이나 천연두 유행으로 농업인구가 줄어든 마당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조정은 예전에 했던 개간 유도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개간한 토지에 관해서는 자손대대로 영구히 사유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을 반포한 것이다.

‘간전영년사재법(墾田永年私財法)’의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났다. 토지의 사유화가 가능해지자 지방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토지를 개간하거나, 새롭게 토지를 넓혀 세력을 키우는 신흥 세력들이 등장할 하게 되었다. 이와 비례해서 중앙 조정의 세력은 약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중앙과 지방의 세력 다툼이 잦아지자, 자연스럽게 두 세력은 사적인 무력 세력을 키우게 되었다. 군대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무사정권의 기초를 닦은 다이라(平) 집안과 미나모토(源) 집안 역시 이 시기부터 토지를 바탕으로 중앙 권력의 중심에 다가서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